



아동안전을 위한 119안전체험교육

글 | 조성완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장

1.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

「세살 버터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릴 때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몸에 배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안전에 관한 의식과 행태는 인간의 사고의 틀이 정형화되기 이전에 각종 안전교육과 체험을 통해 조기에 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기교육의 폐단이 안전교육 부문에서 만큼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어린이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맞춤형 체험 교육

소방관서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추진하게 된 역사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실생활에서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범국민적 화재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불조심 강조기간」 중에 하나의 테마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각급 소방관서에서 주요 업무의 하나로 인식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 개청과 더불어 안전을 총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가. 계층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각 부처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표준화된 안전교육 매뉴얼이 없다. 반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표준을 위한 계층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2005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재난안전관리 교육」사업은 계층별 표준화된 안전교재를 개발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영상물과 체험실습도구가 함께 제작되어 전국의 각급학교와 소방관서에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초등학교용 안전교재 및 교구개발보급(2005년)
- 유아용 안전교재 및 교구개발보급(2006년)
- 청소년용(중·고등학생) 안전교재 및 교구개발 보급(2007년)
- 성인·노인용 안전교재 및 교구개발 보급(2008년)
- 장애인용 안전교재 및 교구개발보급(2009년)



나. 소방서 견학과 체험

소방서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소방서마다 상설 어린이소방안전교실이 설치되어 있어 소방관이저씨가 하는 일을 직접보고 들을 수 있으며, 119에 신고하면 수보받는 상황실에서부터 행정업무를 하는 사무실까지 다양한 소방서 업무를 직접 경험한다. 소방차와 소방관이저씨가 입는 복장을 입고 사진촬영을 할 수도 있으며, 기타 시·청각 자료를 통해 소방서에서 하는 일과 화재 등 각종 사고와 관련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 학교방문교육

필요시에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소방관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는 형태로 1~2명의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해 VTR이나 CD 등 기자재를 가지고, 경험이나 안전에 관한 내용을 현장감 있게 설명하여 어린이들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특히 소방관서에서도 경찰관서와 같이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소방관서의 안전책임을 제고하고 있으며, 최근 화재·전기·가스·교통 등 체험시설을 갖춘 이동안전체험차량의 보급으로 교육의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향상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전문소방교육기관을 활용한 안전교육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중앙과 지방에 6개의 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학교에서는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휴강기와 여름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체험교실과 지도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사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소방교육과 극기훈련 등 체험위주로 진행하며, 지도교사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교육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수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지난 2003년 3월 6일 서울 광진구에 개관한 안전체험관은 지진·풍수해·화재 등 재난관련 20여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만큼 어린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장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와 태백에 추가로 건립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사항에 따라 추가로 전국에 6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바. 사이버를 통한 소방안전교실 운영

PC보급의 증가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로 안전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한국소방방송(<http://fire.go.kr>) 개국과 한국 119소년단 (<http://young119.or.kr>)을 개설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홈페이지에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관을 별도로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안전사고 유형과 사진, 영상자료, 플래시 영상 및 애니메이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 한국119소년단 운영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습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3년 한국119소년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교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안전캠프 운영과 자문회의 등을 추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입단 선서식·소방안전 배우기·심신 수련·다른 지역 친구와의 연대 등 4대 사업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 119축제 등 이벤트 실시

소방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미술대회·동요대회·소방차체험·소방시설체험 등 어린이들이 생활안전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5월 어린이달을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의 달로 지정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통해 가정에서 출발한 안전문화가 학교, 사회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3. 어린이 안전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부터 시행



함으로써 안전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과 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 건립하며 안전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일선 소방서에 안전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런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인프라를 구축하면 우리나라도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